

섬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소리
시옷

Vol. 44
2025년 4월



전라남도
진도 동·서거차도

ISLAND KEYWORD
FRIENDS
PHOTO STORY
LIFESTYLE
PEOPLE
RESOURCE
TRAVEL
NEWS&ISSUE

섬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소리
시옷

Vol. 44
2025년 4월



전라남도
진도 동·서거차도

ISLAND KEYWORD
FRIENDS
PHOTO STORY
LIFESTYLE
PEOPLE
RESOURCE
TRAVEL
NEWS&ISSUE

CONTENTS



ISLAND KEYWORD

03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FRIENDS

섬 친구가 전하는 이야기

04 거차군도, 돌미역 '조도곽'을 아시나요 : 김준 님

PHOTO STORY

사진이 들려주는 섬 이야기

12 거차도가 여기여라

LIFESTYLE

섬, 일상을 보여주세요

16 섬 밥상 먹어 봤는가?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20 당신도 여성 리더가 될 수 있다: 조옥순 님

24 저는 서거차도에 살고 있는 이예향입니다: 이예향 학생

28 모든것이 처음이었어요: 윤종하 님

32 내가 자란 이곳, 다시 살아갈 마을로: 한광준 님

36 노래로 이어진 섬의 하루: 정해석 님

RESOURCE

섬, 무엇이 나고 자라나요

40 1월부터 12월까지,

진도 동거차도와 서거차도에서 나고 자라는 모든 것

41 김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함께 알아볼까요?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42 진도 동·서거차도 투어가이드

44 섬사랑13호 타본 사람 손!

46 거치고 거쳐 서거차도입니다

NEWS&ISSUE

섬, 소식을 전해드려요

48 이달의 주요 섬 뉴스

섬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섬센터에 언제든지 공유해주세요

에디터 김신연

전화: 061-286-6764

이메일: fun1015@korea.kr

전남의 섬에서 펼쳐지는 소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ISLAND KEYWORD

섬 단어 사전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섬은 대양(大洋)을 향하는 디딤돌이자 반도(半島)를 지키는 울타리다. 국토 외곽에 위치한 섬들은 대한민국 영토의 최전방을 수호하는 국경 수비대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지리적·역사적 특수성이 있으며, 매력적인 생태관광자원과 생물·문화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 접근성 제약, 기초생활서비스 부재 등으로 주민들의 정주 환경은 열악한 형편이다.

2024년 1월 16일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진도 동·서거차도 등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 27개, 완도 여서도 등 영해기점 섬 7개, 영광 안마도 등 육지까지의 항로거리가 50km 이상 섬 6개 등 총 43개 섬이 대상지로 포함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올해 종합발전 5개년 계획(2026년~30년)을 수립한다. 국토외곽 먼섬의 국경수비와 해양영토 수호 강화, 생활안정과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접근성 개선과 이동권 보장, 매력 자원화와 생활인구 확보,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구축 등을 목표로 실천과제를 세우게 된다.



영광 안마군도 영해기점 횡도



신안 가거도



완도 여서도

도움주신 분

- 김준 섬 문화 박사 겸 작가
- 김별아 청년 작가
- 조옥순 동거차도 동육리 이장
- 조광원 동거차도 어촌계장
- 김순희 동거차도 주민
- 이예향 조도초등학교 거차분교 학생
- 윤종하 조도초등학교 거차분교 교사

- 한광준 서거차도 이장
- 정해석 서거차도 주민
- 박초월 서거차도 개인 민박
- 최순심 서거차도 우리슈퍼 사장
- 전지영 섬사랑 13호 선장
- 진도군 조도면사무소
- 양진형 한국 섬 뉴스 대표



전남 섬 모든 것이 궁금하다면?



가고 싶은 섬소식이 궁금하다면?



지금까지 발간된 '시웃'이 궁금하다면?

발행처

전라남도 섬발전지원센터
글·사진: 정태군, 김신연



'먼섬 지원 특별법'
발효 뉴스 보러가기
영상정보
목포MBC
뉴스데스크 2025. 1.13.

FRIENDS

섬 친구가 전하는 이야기

거차군도, 돌미역 '조도곽'을 아시나요

김준

섬문화답사기 저자, 한국섬진흥원 이사,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평목항에 이르면 봄안개처럼 피어오르는 아픈 기억을 지울 수 없다. 아니 절대 지울 수 없는 기억이다. 진도항이라는 표지판이 있지만 여전히 기억 속에 '평목항'으로 남아 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추모관은 새로 지어진 육중한 여객선터미널 탓에 더 왜소하다. 이곳에서 배를 타면 거친 바다를 건너 그곳으로 간다. 그곳에 아픔도 묻고 서러움도 삼키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동거차도 동막마을에서 본 거차군도



진도항연안여객터미널(평목항)에서 세월호의 기억

거차군도로 가는 길에 만나는 장죽수도와 거차수도는 물길에 거칠다. 장죽수도는 울돌목이 사돈을 맺자고 하자 거절했다. 그 정도는 거친 물길 축에도 끼지 못한다며 돌려보냈다고 한다. 진도항과 조도 사이 물길이다. 거차군도는 우리나라 서남쪽에 모여 있는 섬이다. 서해와 남해가 만나는 곳이며 바다가 거칠다. 이곳은 동거차도, 서거차도, 상죽도(윗대섬), 하죽도(아랫대섬) 등 유인도가 있고, 상송도, 하송도, 목섬, 북도 등 무인도가 있다. 가장 큰 섬은 동거차도이며, 서거차도는 국가어항이 있다. 서거차항은 진도와 목포에서 출발하는 여객선이 닿는 마지막 항이다. 동거차도와 서거차도를 함께 거차도라고도 한다. 거차도는 주변의 바다는 거칠어서, 옛날 무역선이 거쳐 간다고 해서 붙여진 지명이라는 설이 있다. 지금도 인천에서 제주로 가는 뱃길에 중요 항로이며, 인천이나 평택항에서 동중국해나 태평양을 건너는 배들이 지나가는 중요 항로다. 서거차항은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었다.



돌미역 건조하는 모습(동거차도 동막마을)

Chapter #01 미역으로 산다

갯벌이 발달한 마을은 갯벌이 텃밭이다. 주민들은 갯발을 나누어 바지락 농사를 짓고, 김 양식을 한다. 조도 주민들은 갯바위에 미역농사를 지었다. 마을마다 미역밭이 있고, 마을규칙에 따라 미역밭을 몇 개의 '재건'(미역밭 구역)으로 나눈다. 동거차도와 서거차도는 2, 3개의 재건이 있다. 각 모듬마다 비슷한 숫자의 주민들이 참여해 미역농사를 짓는다. 그리고 매년 재건을 서로 바꾼다. 이렇게 미역농사를 짓는 해안을 '갯번'이라고 한다. 그 미역밭을 관리하는 사람을 '개강구'라 불렀다. 조도면 어느 마을에서는 이장의 활동비로 미역바위를 주기도 했다. 미역밭은 흑산도에서는 뚝, 완도에서는 주비, 동해안에서는 짬라고 부르기도 한다.



돌미역 채취하는 주민(서거차도)

거차군도에는 거친 바다에 솟은 바위섬이 많다. 갯벌이 발달하지 않았으니, 식량을 할 조개를 얻기도 힘들다. 섬에서 농사를 지어 생계를 잇기는 더욱 힘들다. 진도에서 세 시간을 더 가야 하고, 목포에서는 여객선을 타면 아침에 출발해 오후에 도착한다.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파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

섬살이를 허락해 준 것은 놀랍게 세상과 단절을 강요한 거친 바다였다. 그 주인공이 미역이다. 진도곽으로 알려진 미역은 사실은 조도곽이다. 조도에서 나는 미역이다. 진도에서도 최고의 미역으로 꼽는 독거도 미역이나 맹골도 미역이나, 거차도 미역이 있었기에 먼 섬에서 살 수 있었다. 미역농사로 아이들을 물에 유학을 보내고, 시집장가도 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생필품이 필요할 때 미역을 주고 바꿨고, 생활비도 미역으로 보탬다.

최근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국토 수호와 해양 영토 확보라는 측면에서 먼섬을 지켜 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하는 법이다. 그 역할을 해 온 것이 거차군도에서는 미역이었다고 하면 지나친 것일까. 거친 바다를 거슬러 올라온 작은 멸치였다면 믿을 수 있을까.

Chapter #02 미역농사를 짓다



미역밭에 물을 주는 주민들(진도 독거도)

갯바위에 미역포자가 붙어 '스스로' 자라는 것을 농사라 할 수 있을까 의문이었다. 독거도에서 미역밭에 물을 주는 것을 보고, 관매도에서 미역바위에 붙은 잡태를 제거하는 것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분명하게 '미역농사'였다. 지금은 옛날처럼 미역바위를 청소하는 일을 하지 않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 정월 무렵이면 미역바위를 호미나 딱가래(갯바위를 닦는 가래) 등 도구를 이용해 깨끗하게 닦아냈다. 미역포자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미 자리를 잡은 해조류를 제거하는 것이다. 마치 밭에 씨를 뿌릴 때 잡초를 뽑는 것과 같았다. 또 날씨가 무더워지면 물이 많이 빠지는 사리에 밖으로 드러난 미역에 바닷물을 끼얹는 '미역밭 물주기'도 한

다. 비가 오지 않을 때 밭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자연산 돌미역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생산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은 채취한 미역을 분배할 때 불이익을 받는다. 심지어 미역분배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주민들은 물에 나가 있다가도 갯닦기 날짜가 정해지면 만사를 제쳐두고 참석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우면 일당을 주고 대신 일할 사람을 보내기도 했다.



도시로 나간 가족들도 들어와 미역작업을 돕는 모습(진도 맹골도)

미역을 채취하는 날이면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할 만큼 바쁘다. 개강구는 미역밭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주민들과 상의해 채취날짜를 정한다. 날짜가 정해지면 미역밭 권리(주식이라고도 함)를 가지고 있는 주민은 반드시 공동채취에 참석해야 한다.

채취한 미역은 모두 모아 놓고 저울로 무게로 달아 똑같이 참여한 주민의 숫자만큼 나누었다. 배를 가지고 나온 사람은 배뚝을 따로 준다. 나누어 놓은 미역의 주인을 찾는 일도 재밌다. 동거차도나 맹골도에서는 신발을 벗어서 그릇에 담으면 가장 어린 참가자가 머리에 이고 미역 무더기에



저울로 무게를 측정하는 모습(서거차도)

신발을 올려놓았다. 그렇게 미역 주인을 가렸다. 전에는 한쪽 신발을 발로 차서 원하는 미역으로 가깝게 간 사람이 차지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화투를 이용해서 주인을 가린다고 한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공평한 분배를 위해 미역밭을 가르면, 해당 모듬에 사람들이 채취한 것을 구성원이 다시 나누는 방법이다. 같은 갯바위라도 주변 조류의 세기와 갯바위 위치에 따라 가새미역과 넓미역이 자란다. 가새미역은 쫄쫄이 미역이라고도 하는데 미역이 가늘고 두텁고 길다. 조류가 약한 곳은 넓미역 혹은 떡미역이라 부르는 잎이 넓고 부드러운 미역이 자란다. 가새미역이 미역국을 끓이면 국물도 뽀얗고 쉬 물러지지 않는다. 가격도 비싸다. 미역을 나눌 때 이를 고려해 나누지만 그래도 좋은 미역을 갖고 싶어 한다. 이러한 나눔방식은 논란도 없애고 힘든 일을 즐기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 낸 놀이이기도 하다.



Chapter #03 미역밭에서 인심 난다



채취한 미역을 분배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서거차도)

어느 섬에서는 미역농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반 짓 정도를 나누어 주기도 했다. 이러한 집을 '애호'라고 했다. 미역을 얻지 못하면 생계가 불가능했던 섬이기에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한 마을 규칙이다. 미역밭이 일종에 사회보장 역할을 한 것이다. 나눔이 끝난 생미역은 곧바로 밤새 미역 가닥을 만드는 틀을 올려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미역품질이 좋아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가닥을 만드는 기술도 중요하다. 날씨도 도와줘야 한다. 여름철이 미역철이라 자식들도 모두 고향으로 피서를 대신해 미역작업에 나섰다. 미역작업이 끝나고 건조가

지 마치면 주문받은 미역을 직접 가지고 가거나 마을 수집상이 가지고 나가서 팔았다. 이를 '도부' 혹은 '인꼬리' 혹은 '섬돌이'라고 부른다. 인꼬리는 주로 부녀자들이 단골집을 찾아다니며 파는 것을, 도부는 상인이 돌아다니면서 파는 것을 말한다. 섬돌이는 미역이 나지 않는 인근 섬에 미역을 팔고 곡식이나 필요한 것과 바꿨다. 가는 곳마다 단골이 있어 굶지 않고 노숙도 하지 않았다.



채취한 미역을 분배하는 모습(서거차도)

미역가닥을 만드는 모습(동거차도 동막마을)



Chapter #04 미역밭, 새로운 가치로 옷을 입는다

딸이 결혼을 하면 친정어머니가 미리 산모곽이라는 이름으로 조도곽을 주문해서 혼수품으로 넣어주었다고 한다. 이 산모곽은 길이가 어른 키에 이를 만큼 길고, 폭도 넓다. 그래도 절대 반으로 꺾지 않고 선물했다. 일부러 산모곽을 주문하기도 했다. 미역가닥을 접으면 아이의 수명이 짧아진다는 속설 때문이다. 조선시대 여성 풍속을 기록한 『조선여속고』(1927)에는 산모가 첫국밥을 먹기 전에 산모 방의 남서쪽을 깨끗하게 치운 뒤 쌀밥과 미역을 세 그릇씩 장만해 삼신상을 차려 놓는데, 그 밥과 국을 반드시 산모가 먹었다고 했다. 『오주연문장전산고』에는 산모는 하루 네 끼 혹은 여섯 끼를 세 이레 동안 먹어야 한다고 적었다. 아이를 낳고 처음 먹는 미역국을 '첫국밥'이라 불렀다.

2023년 '진도-신안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이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또 해조류 어업이 '블루카본'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 건강한 블루식단 제공하는 식량자원, 어촌의 경제적 기반이라는 다원적 가치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은 출산율이 크게 줄었고, 양식미역이 크게 늘어 옛날처럼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수온변화와 갯녹음 현상 등 해양환경 변화로 돌미역 생산량도 크게 줄었다. 주민들이 나이 들어 갯바위에서 미역을 채취할 사람도 많지 않다. 그래도 지켜야 할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 가치를 나누는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 절실하다.

PHOTO STORY

사진이 들려주는 섬 이야기

거차도가 여기여라



진도 거차군도 위성 지도 *출처: 네이버 지도

Chapter #01 이름에 담긴 섬의 역사와 지리적 특징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의 남쪽 바다에는 동거차도와 서거차도, 두 섬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이들은 함께 거차군도를 이루며, 주변의 상죽도, 하죽도, 북도, 상송도, 송도, 향도와 함께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의 일부를 형성한다. '거차(巨次)'라는 이름은 해상을 지나가는 선박들이 거쳐 가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진다. 이는 선박들의 항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음을 보여준다.



동거차도는 면적 3.23km², 해안선 길이 12.0km로, 섬의 최고점은 해발 136m에 이른다. 중생대 백악기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응회암으로 이루어진 이 섬은 해식애, 해식동, 파식대 등 독특한 지형을 자랑한다. 난류의 영향으로 후박나무 등 난대림이 우거져 있으며, 뽕에돔, 감성돔 등의 낚시터로도 유명하다

*참고 자료
디지털진도문화대전 - 동거차도/서거차도



동거차도 랜선여행 가기
영상정보 youtube
@조덕중-e7x 동거차도 일주



동거차도 동육리 마을 전경



동거차도 동막리 마을 전경



서거차도는 동거차도의 서쪽에 위치하며, 두 섬 사이에는 약 1km의 바다가 놓여 있다. 이 좁은 바다는 맹골수도로, 조류의 흐름이 매우 빠르고 거세기로 유명한 곳이다. 맹골수도는 남해와 서해를 잇는 중요한 해상 통로로 예로부터 해상 교통의 요충지로 활용되어 왔다.



서거차도 랜선여행 가기
영상정보 youtube
@김피디의 Okay Cut / 서거차도 영상



서거차도 푸른 하늘 아래 건조 중인 바닷장어



서거차도에서 바라본 해안선과 암반 풍경

서거차도는 그 중심에 자리하며 망망대해를 오가는 선박들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했다. 섬의 해안선은 암반과 갯바위가 많아 낚시 명소로도 알려져 있고 조류가 빠른 만큼 수산자원도 풍부하다. 또한, 해안에는 파도에 의해 깎여 형성된 해식애(海蝕崖) 지형이 이어지며, 그 속엔 오래된 조업의 흔적과 바다의 시간을 품은 풍경들이 숨어 있다.

Chapter #02 두 섬의 현재 삶과 문화

두 섬은 같은 바다를 바라보며, 서로 다른 리듬으로 살아간다.

서거차도는 작고 조용한 섬이지만,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은 하나씩 갖추고 있다. 선착장에서 내려 마을로 들어서면 보건진료소가 있어 응급 상황이나 간단한 진료를 받고, 해양경찰지소와 복지회관이 일상을 든든히 지켜준다. 마을 초입에 자리 잡은 슈퍼는 배가 뜨지 않는 날에도 주민들이 필요한 생필품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되기도 하고 이야기 보따리가 오가는 따뜻한 쉼터가 되기도 한다.



이야기 보따리가 오고가는 서거차도 우리슈퍼



다양한 품목을 판매중인 우리슈퍼

이 섬 앞바다에선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24년, 서거차도 주민들과 신재생에너지 기업은 상생 협약을 맺고 명량해상풍력 1단계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거센 조류가 흐르는 이 바다 위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섬의 미래가 공존하는 길을 주민들은 묵묵히 모색하고 있다. 풍력발전은 새로운 기회일 수도, 변화의 두려움일 수도 있다. 그 사이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섬의 길을 지켜가고 있다.



서거차도 주변 설치된 풍력 발전기



'세월만 흘렀다...'
동거차도 주민들의 신음
영상정보
KBS 광주전남 / 2024.04.16.

동거차도는 잊을 수 없는 하루를 가슴에 품고 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한 맹골수도 사고 지점은 이 두 섬과 불과 1km 남짓한 거리였다. 사고 당일, 동거차도 주민들은 선뜻 배를 몰고 바다로 나섰다. 가까운 물길에서 일어난 비극에 가장 먼저 달려간 것은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이 섬 사람들이었다. 그날의 구조 활동에 자발적으로 나선 이들의 기억은 지금도 이 섬의 바람 속에 머물러 있다.

▼ 김별아 청년 작가의 '나비의 꿈'



다른 풍경, 다른 삶을 살아가는 동거차도와 서거차도 그러나 이들은 같은 이름 아래, 같은 물길 위에서 슬픔도, 희망도 함께 견뎌내며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의 바다를 잊지 않아야 한다. 섬이 기억하고, 바람이 기억하고, 사람도 잊지 않아야 한다.**



다시 4월.. 세월호 11주기
앞두고 팽목항 순례
영상정보 youtube
2025.03.31/뉴스투데이/MBC

LIFESTYLE

섬, 일상을 보여주세요

섬 밥상 먹어 봤는가?

Chapter #01 'K-섬밥스테이'의 정석

밥보다 마음이 먼저 나오는 섬의 환대. 작은 섬에서는 잠자리가 준비되면 밥상도 함께 차려지는 곳.

#섬 #민박 #삼시세끼 가능한 이곳을 사람들은 'K-섬밥스테이'라 부른다.

식당 하나 없는 섬에서 민박집은 곧 식당이고, 사랑방이다. 숙박 예약할 때 식사 가능한 곳으로 예약을 한다면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가 정성스레 준비된다. 무슨 반찬이 나올지는 묻지 않아도 된다. 잡은 것, 기른 것, 아껴둔 것들이 소박하지만 든든한 한 끼로 차려진다. 제철 앞바다 해산물과 텃밭 채소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특히, 먼 섬의 경우 배 시간에 맞춰 새벽 6시에 밥상을 차려주는 일도 흔하다.

“먼 길 가려면 당연히 배가 든든해야지, 말만하쇼~!”

조용히 불 켜진 부엌. 김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 행여 깰까 조심스레 준비된 밥상 위엔 섬 어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올라온다.



동거차도 김순희 님



서거차도 박초월 님(좌), 최순심 님(우)

Chapter #02 동거차도 vs 서거차도, 섬 밥상 탐구생활

섬마다 밥상이 조금씩 다르다. 같은 바다를 바라보지만, 그릇에 담기는 풍경은 각자의 방식으로 채워진다. 동거차도의 밥상은 바다의 기운이 깊게 배어 있다. 텃밭에서 딴 달래 무침과 갓으로 담근 김치, 직접 손질한 장어건정 간장 찜, 갓 지은 밥과 함께 내어오는 동거차도 미역으로 만든 소고기 미역국, 감성돔 조림, 화려하진 않아도 정성 가득한 반찬들이 매일의 밥상을 차분하게 채운다. 서거차도의 밥상은 정갈하고 소박하다. 섬밥상의 특색인 제육 볶음과 신선한 상추 쌈, 윤기가 흐르는 멸치조림, 아삭한 맛이 일품인 배추와 쪽파를 버무린 곁절이, 부엌을 거쳐 따뜻한 밥상으로 이어진다. 팔팔 끓는 김 된장국 냄새가 한 상을 푸근하게 감싼다.

두 섬의 밥상은 다르지만, 정성과 마음만큼은 꼭 닮아 있다. 냉장고보다는 텃밭과 바다가 식재료를 결정하고, 레시피보다 손끝의 감각과 계절의 흐름이 상을 차려낸다. 메뉴는 매일 달라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언제나 따뜻하다.

바다의 기운이 깊게 배어 있는 동거차도 섬 밥상



김순희님 동거차도 섬 밥상

정갈하고 소박한 서거차도 섬 밥상



박초월님의 서거차도 섬 밥상



쫄깃한 감성돔 조림



향이 진한 엄나무순 장아찌



건강한 김 된장국



새콤달콤 쪽파 돌돌 말아 무침

아침 6시, 배 시간에 맞춰 조용히 불을 켜고 차리는 밥상. 김 모락모락 나는 국, 갓 지은 밥 한 공기 위로 섬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함께 오른다. 동거차도 vs 서거차도, 밥상의 재료는 다르지만 그 환대의 온도는 똑같다.

이 섬에선 밥 한 끼가 하루를 바꾸기도 한다.
섬밥상, 그건 맛보다 먼저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다.
다음 여행, 당신도 이 따뜻한 한 끼를 꼭 만나보길.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조옥순 동거차도 동육리 이장



당신도 여성 리더가 될 수 있다

Q1. 이장이라는 역할을 맡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동안 마을 이장은 대부분 어르신들이 맡아오셨어요. 저는 늘 마음 한편에 "이 마을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죠. 특히 작업장이 너무 협소해서, 매립사업을 통해 공간을 넓히고 싶은 바람이 컸어요. 몇 년 동안 기존 이장님께 부탁도 드려봤지만 일이 쉽게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직접 움직여야겠다는 마음으로 이장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군청과 직접 소통하면서 마을에 필요한 일들을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어요.



빨간 지붕과 동백꽃이 조화로운 동거차도 동육마을

Q2. 여성 이장으로서는 마을을 어떻게 변화시켜 오셨나요?

이장을 맡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주민들과 신뢰를 쌓는 것이었어요. 복지회관에 들어오는 물품은 누구나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개방했고, 일자리도 공평하게 나누며 마을이 함께 살아가는 구조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 젊은 엄마들도 마을 일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었고, 어르신들도 점차 활기를 되찾으셨어요. 마을 청소, 페인트칠, 꽃심기 같은 일들을 함께 하다 보니 사람들 얼굴에 웃음이 늘고, 예전보다 모임도 더 자주 열리게 됐어요. 작은 변화들이 쌓이며 동네 분위기가 훨씬 따뜻해졌죠.

Q3. 여성 리더로서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리더십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마을을 향한 고민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보다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를 먼저 떠올리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봐요. 앞장서서 이끄는 일은 쉽지 않지만, 마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움직이다 보면 조금씩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저는 마을 청년들이랑도 자주 대화를 나눴어요. 술 한잔, 차 한잔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다 보면 마을에 대한 애정도 더 커지고, 스스로도 더 책임감이 생기거든요. 혼자 잘하려는 마음보다 함께 가려는 태도가 리더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조옥순 이장



마을 공동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동거차도 초등학교(폐교)

Q4. 기억에 남는 변화나, 꼭 이루고 싶은 마을의 모습이 있다면요?

이장을 맡고 나서 마을 풍경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지저분하던 골목에 가로등이 들어섰고, 마을 곳곳이 말끔하게 정돈되면서 사람들 얼굴에도 여유가 생긴 게 느껴져요. 지금은 폐교된 분교를 리모델링해서 마을 공동공간으로 만드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아이들도 오고, 어르신들도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죠. 또 어르신들이 혼자 식사하는 일이 많아 안타까웠는데, 다 함께 모여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마을 급식 공간도 꼭 운영해보고 싶어요. 밥 먹으며 웃고 이야기 나누는 그 풍경이, 진짜 살기 좋은 마을의 모습 아닐까요?

Q5. 앞으로 이루고 싶은 계획이 있다면요?

지금까지는 마을을 위해 힘 없이 달려왔다면 앞으로는 조금은 제 삶도 돌아보고 싶어요. 나무 키우는 취미도 다시 시작하고, 멸치랑 미역 채취도 더 여유롭게 해보고 싶고요. 그래도 아직 하나 더 이루고 싶은 바람이 있어요. 집집마다 태양광을 설치해서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마을을 만들고 싶어요. 에너지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것 그게 제가 이장으로서는 마지막으로 꼭 해보고 싶은 일입니다. 그 일이 잘 마무리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리더에게 baton을 넘기고 싶어요. 제가 그려온 리더의 길은 결국, 마을을 위한 발걸음이니깐요.



조옥순님 바라기 백구 진순이

[에디터 이야기] 진심은 결국 사람들을 움직였고 마음을 바꾸고 있었다.

이장이라는 호칭이 꼭 권위나 힘에서 비롯되어야 할까? 그녀를 만나며 그 물음에 스스로 답을 얻게 되었다. 리더십은 누군가를 앞서 이끄는 것 보다 마을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손을 맞잡는 데서 시작되고 있었다. 복지회관 문을 활짝 열고, 일자리를 공평하게 나누고, 폐교된 공간을 공동체 공간으로 바꾸려는 노력까지, 그녀가 실천하는 변화는 결코 크거나 요란하지 않았다. 작고 조용하지만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였다. 그 진심은 결국 사람들을 움직였고 마을을 바꾸고 있었다.

“같이 웃으며 밥 한 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그녀가 꿈꾸는 마을의 풍경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선명했다. 누군가 앞서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먼저 움직이는 사람. 마을을 향한 그 마음이야말로 이 섬에서 가장 단단한 리더십이 아닐까.

동거차도에서 만난 조옥순 이장은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다.

섬은 크지 않아도 마음은 크게 나눌 수 있다고. 당신도, 마을의 온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서거차도에 살고 있는 이예향입니다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예향 조도초등학교 거차분교 4학년 학생

Q1. 예향이는 서거차도에서 가장 신나는 시간은 언제예요?

제일 신날 때는 오빠들이 섬에 놀러 오는 날이에요! 저는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근데 방학 때 큰오빠랑 동희오빠가 목포에서 와서 같이 놀아주면 진짜 재밌어요. 예전에 겨울에 바닷가에서 같이 놀다가, 오빠가 미끄러져서 물에 빠진 적이 있어요. 겨울인데 물속에 '퐁덩!' 빠져서 다 같이 웃었어요. 그리고 비 오는 날에 창문 열고 앉아 있으면 파도 소리랑 빗소리가 같이 들려요. 그럴 때 저는 상상도 많이 해요. 파도가 말을 걸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고동들이 노래 부르는 것 같기도 해요. 조용한 섬에서 듣는 자연 소리는 귀엽고 신나요.



김준 박사와 함께한 미술 시간

Q2.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수업은 무엇인가요?

미술이요! 저는 그림 그릴 때 가장 행복해요. 여자 사람을 자주 그리는데, 눈도 반짝이게 그리고, 옷도 제가 상상한 예쁜 걸 입혀줘요. 그리고 어떤 날은 화가 난 표정을, 어떤 날은 웃는 표정을 그려요. 제가 느끼는 감정이 그림 속 인물에 닮는 것 같아요. 국어 시간에 동화를 읽다가도 "이건 그림으로 그려야지!" 하고 생각하면, 쉬는 시간에도 노트에 쓱쓱 그려요. 음악 시간에는 노래 들으면서도 그림을 떠올려요. 그래서 미술, 국어, 음악은 다 좋아요. 선생님처럼 단둘이 수업하니까 더 자세히 물어보기도 하고, 제 생각을 말할 수 있어서 좋아요. 1:1 수업이 특별한 느낌이에요.

Q3. 서거차도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곳이 있나요? 어떤 점이 멋진가요?

'모래미 바닷가'요. 목섬 가까이에 있어요. 바람도 시원하고, 파도가 예쁘고, 돌멩이들도 반짝거려요. 맑은 날은 섬 바다색이 초록빛 같기도 하고 파랑기도 해서 계속 보고 싶어요. 거기 바닷가에서 걷다 보면, 조개껍데기도 주울 수 있어요. 저는 예쁜 껍데기를 모아서 거차리 집 만들 때 써요. 거차리는 제가 만든 캐릭터인데, 서거차도에 사는 고양이 같은 친구예요. 바닷가 근처에 앉아서 혼자 그림 그리고 있으면, 마음이 조용해져요. 그래서 모래미 바닷가는 저만의 비밀 공간 같아요.

Q4. 바다와 가까이 사는데, 바다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경험이 있나요?

바닷물이 빠질 때, 고동이나 전복 잡으러 나가는 게 재미있어요. 물이 빠지는 시간을 '물때'라고 하는데, 핸드폰에 조석 앱이 있어서 시간 확인하고 나가요. 고동은 이쑤시개로 쓱 빼서 먹어요. 가끔 미역도 보이고, 해삼도 봐요. 해삼은 말랑말랑해서 만지면 물도 뽀뽀, 진짜 신기해요! 예전엔 엄마랑 같이 고동 따러 가서 양동이에 담고 돌아오는 길에, 고동이 양동이 안에서 '꼬물꼬물' 움직이던 게 웃겼어요. 그때는 진짜 바다랑 친구가 된 것 같았어요.



Q6. 섬에 사는 예향이 친구들에게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섬이요! 서거차도는 조용하고 예쁜 섬이에요. 밤엔 별이 진짜 많이 보여요. 도시보다 하늘이 훨씬 커 보여요. 그리고 분교도 자랑하고 싶어요. 친구는 없지만, 선생님이랑 단둘이 수업해서 더 자세히 배우고, 제 이야기를 길게 할 수 있어요. 친구들이 섬에 놀러 오면 바닷가도 같이 가고, 거차리도 소개해주고 싶어요. 예전에 만든 조개 목걸이도 보여주고 싶어요. 직접 주운 걸로 만든 거라서 자랑하고 싶어요! 돛 춤추는 걸 보고 그걸 따라 그리기도 해요. 저는 그림으로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림이 제일 좋아요.

Q7. 예향이 꿈꾸는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화가요! 그냥 매일매일 그림만 그리고 싶어요. 특별한 화가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제가 만든 캐릭터들로 그림책을 만들고 싶어요. 바다에서 사는 거차리, 말 없는 돌미역, 수줍은 전복이, 웃긴 고동이... 이런 친구들이 나오는 이야기로요. 그림을 그릴 때 저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친구들이 제 종이 속에서 웃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어른이 돼도, 저는 지금처럼 상상하고 그리고,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리고 서거차도에 계속 살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바다가 있고, 별이 있고, 조용한 이 섬이 제일 좋아요. 돛 춤추는 걸 보고 그걸 따라 그리기도 해요. 저는 그림으로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림이 제일 좋아요.

[에디터 이야기] "그림을 그리면 행복해져요."

예향을 만난 건 파도가 잔잔하던 서거차도의 오후였다. 분교에 단 한 명뿐인 학생, 예향이는 조용했지만 눈빛만은 반짝이고 있었다. 바다를 친구 삼아 자라난 아이는 종이에 마음을 담아 그림을 그리고, 고동과 전복, 돌미역에게도 생명을 불어넣는다. 예향이의 말에는 꾸밈이 없었다. "그림을 그리면 행복해져요." 그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남는다. 누군가는 작다고 느낄 섬의 하루지만, 예향이에게는 그 누구보다 풍성하고 환한 세계가 자라고 있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담아 본다. 예향이의 그림처럼, 이 페이지도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 머물기를 바라며.

'거차리' 캐릭터 소개시간

Q5. 가장 좋아하는 놀이와 취미는 무엇인가요?

가장 좋아하는 건 그림 그리기! 그리고 제가 만든 친구들로 이야기를 만들기도 해요. '거차리'는 서거차도의 마스코트예요. 고양이처럼 생겼고, 고동이, 전복이, 돌미역이랑 같이 친구예요. 거차리는 배 위에서 태어났고, 바다에서 유리병을 주워서 놀이터를 만들어요. 그 친구들은 바다 속 모험도 하고, 바위 뒤에 숨기도 해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가끔은 공책에 대사도 써놔요. 또, 미역이 바람에 날리듯 춤추는 걸 보고 그걸 따라 그리기도 해요. 저는 그림으로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림이 제일 좋아요.



이예향 학생이 그린 '거차리' 캐릭터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윤종하 조도초등학교 거차분교 교사

Q1. 선생님께서 거차분교에 오시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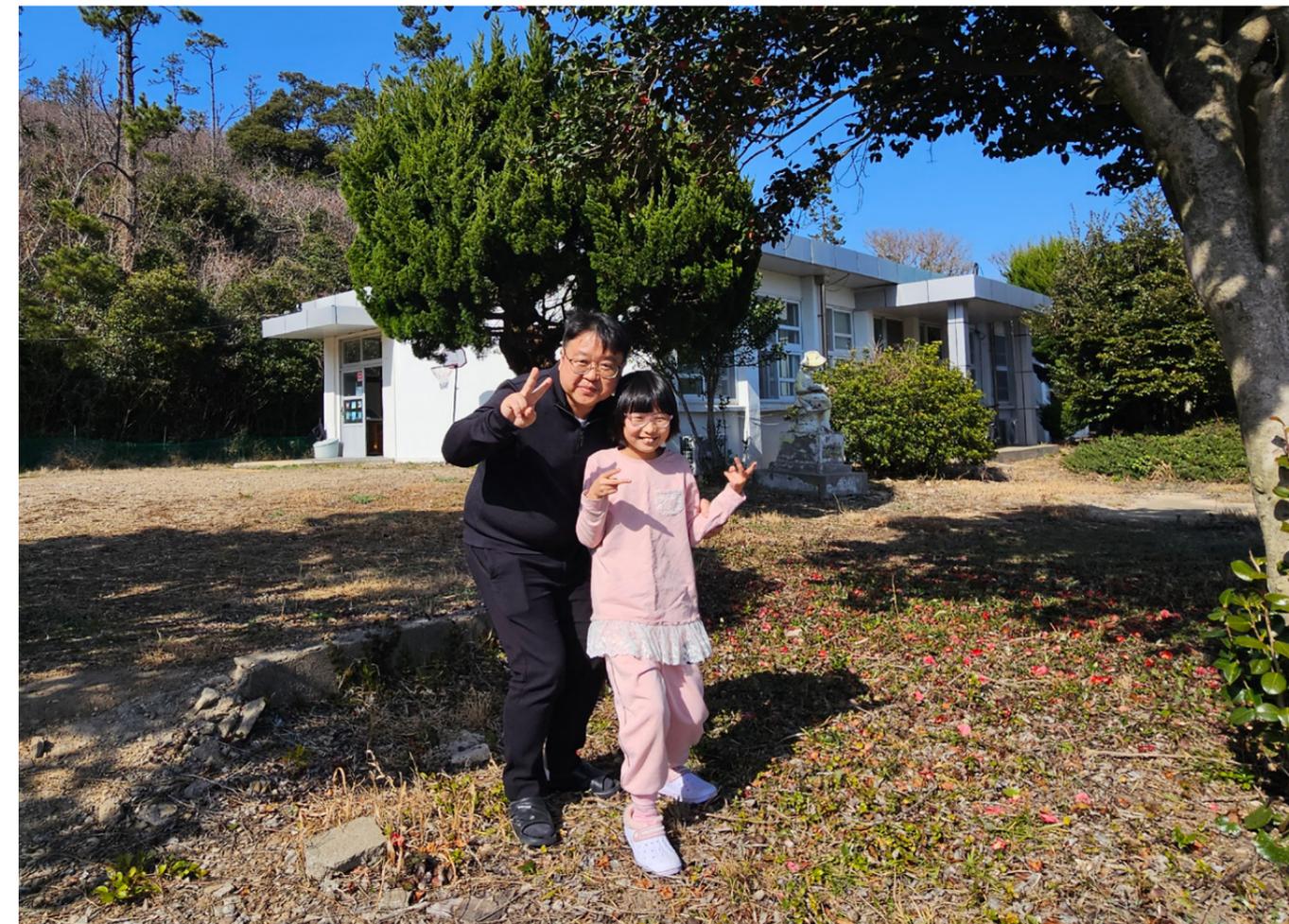
많은 사람이 쉽게 선택하지 않는 길을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섬 분교, 한 명의 학생, 멀고 조용한 환경까지, 이곳은 그런 길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서 교육자로서 의미 있는 시간이 시작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 한 명과의 만남, 그 속에서 새롭게 열릴 배움의 방식과 관계 중심의 교육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Q2. 분교에서 단 한 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경험, 어떤가요?

예향이는 이 학교의 유일한 학생이에요. 수업은 예향이의 시선과 감각에 따라 유연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림을 좋아하는 아이답게 미술시간이되면 풍부한 상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로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들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 학교 텃밭에 작은 상추, 꽃 들을 심어 관찰하며 글을 쓰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자연과 감정, 계절이 수업의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예향이와 함께 배우는 이 경험은 교사인 저에게도 크고 소중한 배움이 되어주고 있어요.

Q3. 예향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섬세하고 조용한 아이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정말 뛰어나죠. 좋아하는 캐릭터를 반복해서 그리고, 바다를 보며 상상한 이야기를 종이에 담기도 해요. 예향이의 언어와 표현 방식을 존중하며 수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점점 더 넓은 세계를 만나고 있다고 느껴요.



윤종하 교사와 이예향 학생

Q4. 분교의 일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침에 예향이가 학교 문을 여는 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립니다. 정해진 종이 없어도, 자연의 리듬과 아이의 발걸음이 하루를 이끌어요. 날씨와 감정에 따라 수업 주제가 바뀌고, 그림도 그리다가 텃밭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점심시간에는 나란히 앉아 밥을 먹고, 작은 대화를 나누며 하루가 채워지죠. 이곳의 하루는 느리지만 깊고, 조용하지만 따뜻한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수업을 마친 후 선생님의 따뜻한 배움

Q5.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철학이 있다면요?

‘배움은 기다림에서 시작된다’는 말을 자주 떠올립니다. 아이의 속도를 존중하고, 그 안에서 세상을 여는 문을 하나씩 찾아가도록 돕고 싶어요. 교과서에는 친구들과 협력하는 활동들이 많지만, 이곳에서는 예향이에게 맞게 1:1 수업 방식으로 새롭게 구성해요. 예향이와 함께 역할을 나누거나, 대화를 통해 협동의 의미를 배워가며 수업의 깊이를 만들어갑니다. 아이 스스로 생각을 표현하고, 감정을 말로 꺼낼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의 방향입니다.

Q6. 학교 운영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학교 시설을 관리하는 일은 교육만큼이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교실 정리, 화장실 청소, 전기 점검 등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매일 조금씩 손이 닿아야 하거든요. 이곳은 섬이다 보니 외부 인력이 자주 오기 어렵고, 시설 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힘들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전기가 끊기거나 관사에 누전이 생기면 걱정이 커지죠. 그래서 마을과 연계해 시설 관리나 정리 작업을 주기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학교는 배움의 공간인 동시에 생활의 터전이기도 하니까요. 아이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꿉니다.



조도초등학교 거처분교 운동장 전경

Q7. 앞으로 이 학교에서 이루고 싶은 바람이 있다면요?

예향이가 자신만의 속도로 감정을 표현하고, 상상한 세계를 자신 있게 펼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림책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는데, 언젠가 정말 그런 책을 만든다면 그 첫 장에 이 교실이 배경이 되었으면 해요. 그리고 거처분교가 계속해서 ‘아이 한 명이 중심이 되는 교육 공간’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작지만 온기가 있는 학교,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교실 그런 공간이 오래오래 남기를 꿈꿉니다.

[에디터 이야기] 기다림으로 가르치는 사람

윤종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교사’라는 단어가 다시 다가온다. 가르침보다 먼저 다가가고, 기다림으로 가르치는 사람. 아이 한 명이 있는 교실에서 오늘도 단 하나의 수업을 위해 준비하고, 또 걸어가는 사람. “저는 예향이가 만들어가는 속도를 따라갑니다.” 그의 말에는 섬 분교라는 공간에 스며든 따뜻한 철학이 배어 있다. 조용한 교실이지만 그 안엔 아이의 상상력이 자라고, 한 교사의 땀과 시선이 겹쳐진다. 이야기를 정리하며 마음속에 오래 남은 말이 있다. “예향이는 혼자지만 괜찮아요. 그림이 있으니까요.” 작은 학교가 아이에게 세상을 표현할 수 있는 충분한 무대가 되어준다는 것을 윤종하 선생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한광준 서거차도 이장

내가 자란 이곳, 다시 살아갈 마을로

Q1. 서거차도 이장으로 활동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서거차도는 제 유년 시절이 깃든 곳이에요. 초등학교를 마치고 육지로 유학을 떠나 생활했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오랫동안 일하고 살다가 여러 여건이 맞아 떨어지며 귀향했고, 그 후 마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었어요. 이장직을 맡게 된 건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지켜가자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배우고 있습니다.



서거차도 여객선 대합실

Q2. 이장으로서 요즘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교통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느껴요. 서거차도는 지리적으로 외진 편이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섬사랑호 같은 국가 지원 여객선이 있는 반면, 민간 여객선은 운항이 잦지 않고 상황에 따라 쉽게 중단되기도 해요. 이로 인해 섬 주민들은 때로는 고립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이 섬을 찾고 싶어지는 매력력이 필요해요. 관광 자원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교통 인프라도 뒤따를 수 있을 거예요. 인프라 구축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멋진 풍경을 자랑하는 서거차도 돌레길

Q3. 마을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나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건 돌레길 조성 and 전망대 정비입니다. 이곳의 자연은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은 보물이거든요. 겨울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는 특히 아름다워요. 대섬과 서거차도를 잇는 구름다리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게 되지 않을까요? 관광 명소화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있어요. 또한 풍력발전과 같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업도 구상 중이에요. 이를 위해 마을 총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고요. 이런 변화가 단순한 개발이 아닌, 마을 전체의 이익과 연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서거차도 선창



오랜 사진첩에서 발견한 과거 서거차도 파시

Q4. 섬에 다시 돌아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경제적인 기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어업 외에는 뚜렷한 수입원이 없어 귀향을 고려하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여건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에요. 공동 작업장을 운영하거나, 특정 작물을 재배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다행히 서거차도는 출장소, 보건소 같은 기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생활 자체는 무리가 없어요. 의료 서비스도 정기적으로 찾아와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죠. 여기에 소득 기반이 더해지면 많은 분들이 돌아올 수 있을 거라 믿어요.

Q5. 앞으로 어떤 마을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섬은 공간적으로 좁지만, 사람 사이의 마음만큼은 더 넓고 깊게 이어져야 해요. 주민 간의 갈등 없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을, 누구든지 편안히 어울릴 수 있는 마을을 꿈꿔요. 과거 삼치 파시가 한창일 때, 서거차도는 활기로 가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방, 가게, 사람들로 북적였던 그 시절처럼, 다시 활기가 흐르는 마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제가 이장으로서는 그리고 있는 미래예요.



서거차도 미역을 채취 중인 마을공동체(24년)

[에디터 이야기] 조용한 사람의 진심은 오래 남는다.

그의 말에는 수십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겸손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섬의 자연은 익숙했지만 마을의 구조와 관계는 새로웠고, 그는 조심스럽게 마을에 발을 디뎠다. 회의에 참여하고 주민들과 대화하며 하루하루 마을을 배워가는 그의 모습은 이장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었다. 관광과 경제, 자연과 사람. 그는 이 모든 키워드를 품고 마을을 미래로 이끌고 있다. 삼치 파시가 열리던 그 시절의 추억처럼, 마을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움직이고 있다. 조용한 사람의 진심은 오래 남는다. 서거차도 한복판 그 진심이 뿌리내리고 있다.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정해석 서거차도 주민



정성가득한 섬집 정원에서 반겨주시는 박봉엽 어머니

노래로 이어진 섬의 하루



Q1. 서거차도에서 지내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서거차도는 제 고향이에요. 태어난 집도 바로 앞에 있는 오막살이였죠. 초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중학교가 없어서 자연스럽게 육지로 나갔어요. 학창 시절은 물론, 사회생활도 서울에서 오래 했죠. 그러다 2002년쯤 잠시 쉬러 고향에 내려왔다가, 이듬해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히 귀향하게 되었어요. 효자라는 말은 부끄럽지만,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이 시간이 지금 제겐 가장 큰 위로이자 소중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섬에서의 삶을 다시 배워갔고, 그렇게 하루하루 이곳의 시간이 저에게 맞춰졌어요.

Q2. 섬 생활은 어떤가요? 육지와는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섬이 답답하다고들 하지만 저는 그보다 여유롭고 풍요롭게 느껴져요. 하루하루 할 일이 많아서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하죠. 환경센터 소장으로 일할 땐 바빴고, 지금은 집과 정원을 꾸미며 시간을 보내요. 정원 일을 하다 보면 헛생각도 들지 않고, 몸을 쓰는 만큼 마음이 차분해져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주는 평온함이 있어요. 누군가는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저는 이 느린 시간이 좋습니다. 섬에서는 날씨 하나에도 하루가 바뀌고,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 도시에서는 잊고 살던 감각들이 이곳에선 매일 깨어나죠.

Q3. 어릴 적 기억 중 가장 그리운 장면이 있다면요?

옛날 서거차도의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요. 방파제가 없던 시절, 깨끗한 백사장과 깨돌밭, 산마다 가득했던 나무들...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 시절의 풍경은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인구도 많았고, 산과 바다로 뛰어다니며 놀던 기억이 그림쥬. 그 자연이 만든 삶의 리듬은 지금도 제 몸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사계절이 다 다르게 느껴졌어요. 겨울 바람 냄새, 봄날 바닷물 색깔, 여름 밤의 별빛까지. 그런 기억들이 지금의 제 감성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1호 팬 박봉업 어머니

Q4. 노래를 부르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노래는 제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라디오로 노래를 듣고 외우는 걸 좋아했어요. 잘 사는 집에 있던 LP판 소리도 몰래 들으며 따라 부르곤 했죠. 목소리는 어머니를 닮았어요. 어머니도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잘하셨거든요. 요즘도 세미트롯, 민요, 가곡, 발라드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부릅니다. 목소리 톤도 곡에 따라 다르게 조절해요. 노래는 저한테 단순한 취미 이상이에요. 섬에서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또 하나의 언어입니다. 어떤 날은 조용히 혼자 부르고, 또 어떤 날은 이웃들과 노래를 나눌 때도 있어요. 그럴 땐 섬이 무대가 되고 바람이 반주가 되어줘요.

Q5. 가장 감동적인 무대나 기억은 언제였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코로나 시기, 전국노래자랑 40주년 방송에 초대받았을 때였어요. 그동안 상을 받았던 출연자 중 13팀 안에 제가 뽑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믿기 어려웠는데 정말이었어요.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았구나” 하는 그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깊었어요. 송해 선생님이 살아계셨을 때였고, 그 무대는 제 인생의 소중한 장면으로 남아 있어요. 그날 이후로 노래에 대한 자부심도 더 커졌고, 앞으로도 섬의 일상 속에서 노래로 기억을 남기고 싶다는 바람이 생겼어요.



전국 노래자랑 40주년 출연 이야기



유년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한광준 서거차도 이장)와 함께

Q6. 지금 이루고 싶은 소박한 바람이 있다면요?

어머니와 함께 지금처럼 조용히,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요. 정원도 천천히 가꾸고 있어요. 잡초는 줄이고, 손이 많이 가지 않게 다듬는 게 목표예요. 사람들은 정원을 보기 좋게 꾸미는 데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 안에서 노동이 주는 고요함, 일상 속 만족을 더 소중하게 느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씩은 제 정원에 친구나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차도 한잔 나누고, 노래도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런 순간들이 쌓이면, 이 삶이 더 특별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에디터 이야기] 하루를 노래로 만들어 가는 사람

정해석 님과의 인터뷰는 마치 오래된 LP판을 조심스럽게 돌려 듣는 기분이었다. 섬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그 안에는 삶의 리듬이 있고 세월이 녹아 있다. 그는 서거차도의 사계절, 오르내리는 정원길, 그리고 어머니와의 하루를 조용히 노래로 만들어 가는 사람이다. 그의 삶은 조용하지만 깊고 단순하지만 풍요롭다. 목소리 하나로 마을에 온기를 불어넣고 정원의 작은 풀잎 하나까지도 애정을 담아 돌보는 그의 하루는 섬이라는 공간의 아름다움을 증명하고 있다. 서거차도라는 무대에서 정해석이라는 목소리는 오늘도 울림을 남긴다. 그 노래는 바닷바람을 타고 마을을 돌고 마침내 우리에게도 닿는다.

가수의 꿈을 접고 15년째 섬에 살고 있는 트로트 가수 정해석의 사연 보러가기
영상정보
2000.06.26/특종세상/MBN

RESOURCES

섬, 무엇이 나고 자라나요?

1월부터 12월까지 진도 동거차도와 서거차도에서 나고 자라는 모든 것

진도군 조도면에 위치한 동거차도와 서거차도는 풍부한 어장과 해조류로 유명합니다. 특히, 자연산 돌미역과 툫이 주로 생산되며 이러한 해조류는 지역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이자 특산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동거차도	
종류	기간
양식 미역	1월~3월
까나리	6월
돌미역, 툫부기, 가사리, 툫	7월~8월
멸치	8월~12월
민어, 돔	11월~12월
김	12월~3월

서거차도	
종류	기간
장어, 우럭, 솜뱅이	1월~12월
광어	6월~8월
고추	6월
돌미역, 툫	7월~8월
검정콩, 장콩, 서리태	11월
김	12월~3월

돌김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함께 알아보까요?

바위에서 춤추던 김이 우리 밥상 위에 오르기까지는 여러 날의 시간과 수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정성스럽게 조용히 완성되는 서거차도의 자연산 돌김 이야기를 따라가 봅시다.



Step 1. 바다에서 돌김을 걷는다

썰물 시간에 맞춰 바다로 나갑니다
자란 김을 조심스럽게 걷어 올리는 것으로 김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Step 2. 물에 풀어 틀에 뜬다

김 원초를 물에 풀고 얇고 고르게 나무틀에 펼칩니다
겉치지 않게, 찢어지지 않게 손끝의 정성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Step 3. 해풍과 햇살에 말린다

김을 해풍이 잘 드는 마당에 널어 자연 건조합니다
날씨가 흐리면 하루 더, 비가 오면 다시 처음부터
김을 만드는 날엔 언제나 하늘을 먼저 살핍니다



Step 4. 불 위에서 굽는다

잘 마른 김을 숯불에 살짝 굽고, 기름과 소금을 바르거나
간장소스를 찍어 고소하고 바삭한 김으로 완성합니다



Step 5. 따뜻한 밥상 위로

바다와 햇살, 사람의 손길이 담긴 김은
따뜻한 밥 한 공기 위에 올라 섬의 하루를 풍성하게 마무리합니다.

한 장의 김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안에는 바다의 시간과 사람의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섬에서 김을 만난다면, 꼭 한 묶음 챙겨가도 좋아요. 그 맛은 오래도록 기억될 테니까요.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섬 여행 전 날씨 확인은 필수겠죠?
동·서거차도 날씨 확인하기



진도 동·서거차도 투어가이드 (2025년 3월 기준)

■ 기본 현황

구분	동거차도	서거차도
가구·인구	68가구·114명	67가구·109명
면적·해안선 길이	2.71km ² ·17.42km	2.21km ² ·14.70km
주요 관공서	육경파출소, 보건진료소	해경파출소, 초등학교, 보건진료소

■ 기본 현황

1. 진도에서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

* 진도항 → 관매도 → 서거차 구간: 하절기 (3.1 ~ 10.31)

한림페리 11호 (H/L해운)	진도항 → 서거차	진도항 출발(09:50) → 창유(10:30) → 관사(11:00) → 소마(11:10) → 모도(11:20) → 대마(11:30) → 관매(11:55) → 동거차(12:40) → 서거차 도착(13:00)
	서거차 → 진도항	서거차 출발(13:20) → 동거차(13:40) → 관매(14:20) → 대마(14:45) → 모도(14:55) → 소마(15:05) → 관사(15:15) → 창유(16:00) → 진도항 도착(16:40)

- 진도항(팽목항) 주소: 전남 진도군 진도항길 90 진도항 연안여객터미널
- 문의: (H/L해운) 팽목 061)544-0833
- 소요시간: 3시간 10분 (서거차도 기준)
- 여객선 운임: 진도 → 서거차도 20,300원 / 동거차도 → 서거차도 3,500원 (성인 편도 기준)

2. 목포에서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

* 목포항 → 서거차 구간: 하절기 (3.1 ~ 10.31)

섬사랑10호, 섬사랑13호 (해광운수)	목포항 → 서거차	목포 출발(08:30) → 시하 → 마진 → 울도 → 고평 → 쉬미(11:01) → 저도 → 광대 → 송도 → 혈도 → 양덕 → 주지 → 가사(12:20) → 소성남 → 성남 → 옥도 → 내병 → 외병 → 눌옥 → 갈목 → 진목 → 창유(15:32) → 울목 → 라배 → 관사 → 소마 → 모도 → 대마 → 관매 → 동거차 → 서거차(18:00) 도착
	서거차 → 목포항	서거차 출발(07:00) → 동거차 → 관매 → 대마 → 모도 → 소마 → 관사 → 라배 → 울목 → 창유(10:06) → 진목 → 갈목 → 눌옥 → 외병 → 내병 → 옥도 → 성남 → 소성남 → 가사(13:05) → 주지 → 양덕 → 혈도 → 송도 → 광대 → 저도 → 쉬미(14:33) → 고평 → 울도 → 마진 → 시하 → 목포(17:00) 도착

- 목포항 주소: 전남 목포시 해안로 182 목포항연안여객터미널
- 문의: 해광운수 061)283-9915
- 소요시간: 9시간 30분 * 전화 사전 예약제로 여객이 없을 시 미기항, 여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항
- 여객선 운임: 23,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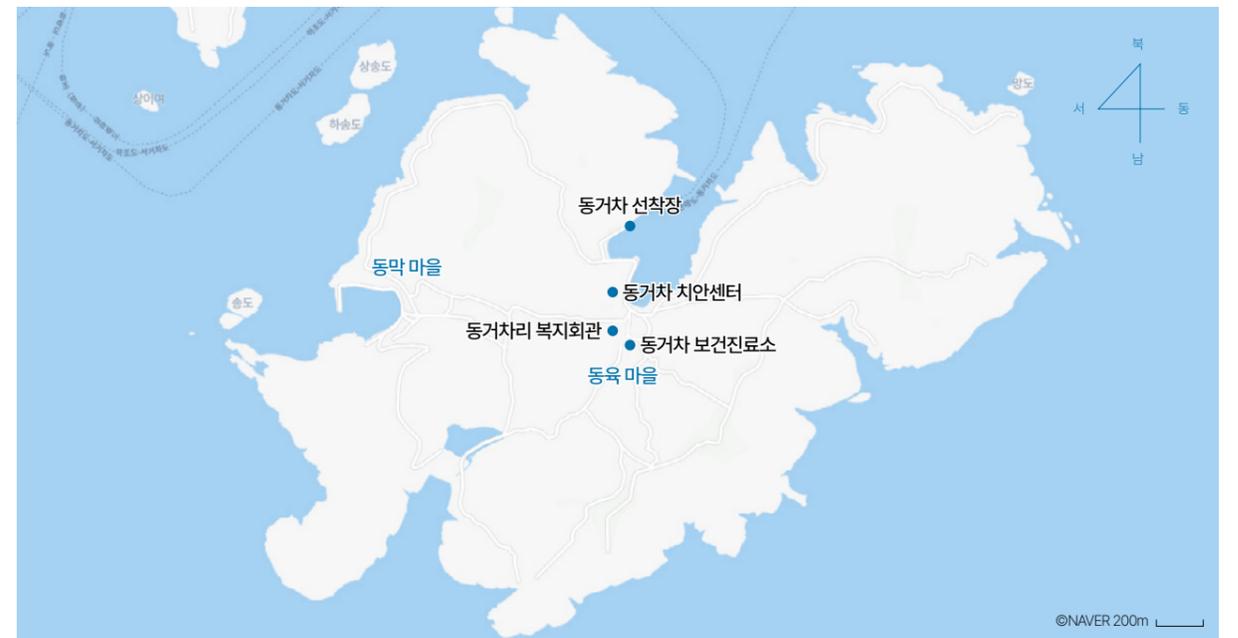
* 동·서거차에는 일부 가정집에서 숙박과 식사가 가능합니다. 섬센터에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61-286-6764

▼ 서거차도



▼ 동거차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과 함께하는
내일의 동·서거차도 운항 정보를 확인해 볼까요?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서거차도에서 목포를 향해 출발한 섬사랑 13호

섬사랑 10·13호 타본 사람 손!

“섬도 버스처럼 타면 된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는 배!

바로 섬사랑 10호, 13호다. 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출발해 상조도(울목항)를 거쳐 서거차도까지, 무려 최대 32개의 섬을 경유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항로를 가진 여객선으로 모든 섬에 기항하면 약 9시간 30분이 걸리지만 실제 운항은 사전 예약된 섬들만 경유하기 때문에 평균 6시간 안팎의 여정이 이어진다.

이 배는 섬 주민들에게는 중요한 이동 수단이자 소통의 공간이며 여행자들에게는 다도해 풍경을 천천히 감상할 수 있는 해상 여행 플랫폼이다. 배에 오르면 바다가 창문이고 섬들이 배경이 된다. 경유하는 섬마다 각기 다른 마을 풍경이 펼쳐지고, 그 순간을 바라보는 여행자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느려진다. 좌석은 여유롭고, 분위기는 정겹다. 섬과 섬 사이를 오가는 이 배 위에서 섬의 하루를 함께 건너는 특별한 여행이 시작된다.

탑승 TIP

섬사랑 (10/13)호는 예약에 따라 섬을 선택해 들르는 ‘맞춤형 섬 버스’예요. 들를 섬은 전화 예약으로 직접 정하는 구조! 어디에 멈출지는 누가 타고 누가 기다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고 싶은 섬이 있다면 출항 전에 꼭 전화로 예약하세요. 여러분을 기다리는 새로운 섬, 섬사랑 13호가 이어줄지도 몰라요. 2025년 3월 기준 ‘섬사랑 10호’와 ‘섬사랑 13호’가 목포에서 서거차도까지 번갈아 운항 중이에요. 오늘은 어떤 배가 바다 위 여행을 함께할까요?

▼ 섬사랑 10·13호 항로



▼ 32개 항로를 모두 들렀을 경우 예상 도착 시간

신안군 진도군

- 1 목포 출발(8:30) → 2 시하 → 3 마진 → 4 백야 → 5 울도 → 6 고평사 → 7 쉬미(11:01) → 8 저도 → 9 광대 → 10 송도 → 11 혈도 → 12 양덕 → 13 주지 → 14 가사 → 15 소성남 → 16 성남 → 17 옥도 → 18 내병 → 19 외병 → 20 눌옥 → 21 갈목 → 22 진목 → 23 창유(15:32) → 24 울목 → 25 라배 → 26 관사 → 27 소마 → 28 모도 → 29 대마 → 30 관매 → 31 동거차 → 32 서거차(18:00)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거치고 거쳐 서거차도입니다

SPECIAL GUEST 전지영 섬사랑 13호 선장

Q1. 섬사랑 13호의 선장으로 일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처음부터 섬사랑 13호만 운항했던 것은 아니에요. 다양한 배를 타며 여러 항로를 경험했죠. 그중에서도 섬사랑 13호는 유독 정거장이 많고 다양한 섬 주민들과 자주 마주하는 배였어요. 여러 섬을 오가며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이 일은 제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단순히 섬을 잇는 교통수단을 넘어 사람과 사람, 섬과 시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 항해를 하면서도 매번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 배는 제게 하나의 살아있는 연결망처럼 느껴집니다.

Q2.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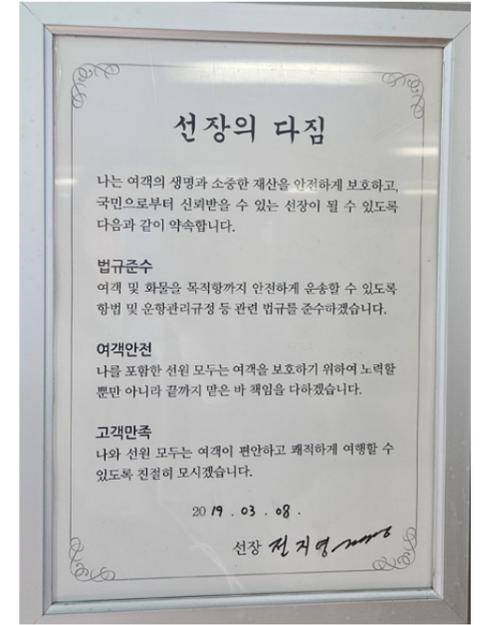
섬사랑 13호는 단순한 배가 아니에요. 주민들에게는 병원에 가는 길이 되고, 자녀를 만나러 가는 여정이 되며, 생필품이 실리는 중요한 운송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응급 약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서류나 택배를 실어 나르기도 하죠. 저는 단지 선장이 아니라, 그 연결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 배가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지고, 제 역할이 사람들의 삶에 작은 희망이 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Q3. 기억에 남는 승객이나 순간이 있으신가요?

승객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한 존재예요. 오늘 타신 분, 내일 타실 분, 각각의 사연이 다르고 의미도 달라요. 이름을 모두 기억하진 못해도, 매번 정성을 다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신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항해 중 날씨가 급변할 때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들이야말로 제게 배를 몰고 있다는 책임감을 되새기게 해줘요. 바다는 늘 변화무쌍하지만, 그 안에서 저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다짐으로 오늘도 키를 잡고 있습니다.



항해 중인 전지영 선장



전지영 선장의 다짐

Q4. 기상이 안 좋을 땐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요즘은 기상 정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출항 전부터 상황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예보가 좋지 않으면 미리 운항 계획을 조정하거나 출항을 연기하기도 해요. 예전에는 돌발 상황이 많았지만, 이제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더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승객들의 여정 하나하나가 소중하기에, 단순히 도착이 아니라 '무사히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움직입니다. 바다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 안에서 가장 안정적인 항로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경험을 쌓아가고 있어요.

Q5. 10년 뒤의 삶을 상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10년 뒤라면, 아마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느긋한 일상을 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랜 시간 바다 위에서 보낸 만큼, 앞으로는 육지에서 새로운 시간을 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동안 이 일을 해오며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여러 섬을 오갔죠. 젊은 선장들이 이 배를 이어받아 더욱 활기찬 항해를 해나가기를 응원하고 있어요. 저는 섬사랑 13호라는 이름과 함께 기억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나온 시간 모두가 감사했고, 지금도 바다는 여전히 제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에디터 이야기] 바다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항해

전지영 선장은 말수가 많지 않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수십 년간의 항해에서 길어올린 신뢰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섬과 육지를 오가며 그는 수많은 이들의 하루를 이어주는 조용한 연결선이 되어주었다. 그는 특별한 손님을 떠올리기보다는 모든 승객에게 같은 마음으로 다가갔다고 말했지만 그를 기억하는 손님들은 분명 많을 것이다. 그의 배, 그의 눈빛, 그리고 그의 배려는 늘 그 자리에 있었다. 조용했지만 깊고 담백했지만 진심이었다. 섬사랑 13호는 특별한 공간이다. 그 위에는 누군가의 병원행 여정이 있고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이 실려 있으며 생계를 잇는 무거운 시간도 담겨 있다. 하루도 같지 않은 항해 속에서도 이 배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그 긴 시간 동안 전지영 선장은 흔들림 없는 자세로 키를 잡아왔다. 바다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항해. 그의 삶은 선장의 길을 넘어서, 한 시대를 향해한 기록으로 남는다. 지금 그는 잠시 배에서 내려 쉴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가 만든 길은 여전히 파도처럼 누군가의 하루를 조용히 이어가고 있다.

NEWS&ISSUE

섬, 소식을 전해드려요



“기차 타고 전남 섬으로 봄나들이 오세요”

▷ 여수 낭도 등 5개 섬 상품 출시...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전라남도는 1일 코레일과협력해 봄맞이 '가고 싶은 섬' 기차여행 상품 12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섬 기차여행은 서울·경기·충북 등 내륙지역 여행객이 KTX를 이용해 전남을 방문하고, 섬에서 다양한 체험을 즐기도록 기획된 상품이며 섬 여행객들에게 1인당 4만~6만원의 인센티브와 KTX 왕복 열차비30%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김준성 기자 | 2025. 04. 01.



전남도, 섬 지역 등 의료취약지에 공보의 477명 배치

▷ 1차 의료 최일선에서 도민의 건강 책임

전라남도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1차 의료와 공공보건 업무에 종사할 신규 공중보건 의사 194명을 포함한 477명을 9일 배치한다. 배치 기관은 238개 보건기관, 지방의료원 3개소, 취약지 병원 응급실 19개소, 병원선 2척 공립병원 등 14개소이다. 공중보건 의사는 1차 의료 최일선에서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게 된다.

김준성 기자 | 2025. 04. 08.



전남도, '섬 청년 국제교류 활동' 올해도 지속 운영

▷ 멘토링부터 국제섬 워크캠프까지 섬 중심 국제 교류 확대
▷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국내외에 홍보 활동도 적극 펼치기로

전라남도는 섬 청년의 자긍심을 높이고, 섬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반기에는 신안 도초고등학교에서 섬 지역 학교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진로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하반기에는 제6회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가 신안, 완도, 여수 등 전남의 주요 섬 지역에서 펼쳐진다.

김준성 기자 | 2025. 04. 25.



여수 안도·초도, 행안부 '섬지역 특성화 사업' 2단계 승급

▷ 행안부, 섬별로 핵심 분야에 2년간 9억원 투입

전남 여수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섬 지역 특성화 사업' 2단계 승급 심사 결과 안도와 초도(의성)가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2단계 승급 심사를 통과한 화태도에 이어 2개 섬이 추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섬 지역 특성화 사업은 주민 스스로 마을 특화 공동체를 구성해 주력사업을 발굴하고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책사업이다.

양진형 기자 | 2025. 04. 03.



완도군, 국비 106억 투입 '섬 종합개발사업' 추진

▷ 선착장·도로 정비, 경관 조성 등 생활 시설 확충

▷ 소규모 어항 개발 군비 57억원 추가 확보

올해는 행안부와 국토부 등 2개 부처가 협력하여 금일읍 소량도·월송리와 보길면 예작리·청별 물양장 확장, 노화읍의 북고리·총도리 선착장 정비, 군외면 흑일도 도로 정비 및 LPG 배관망 설치, 청산면의 노을길 경관 조성과 여서리 등산로 진입로 개설, 모동리 마을 안길 포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진형 기자 | 2025. 04.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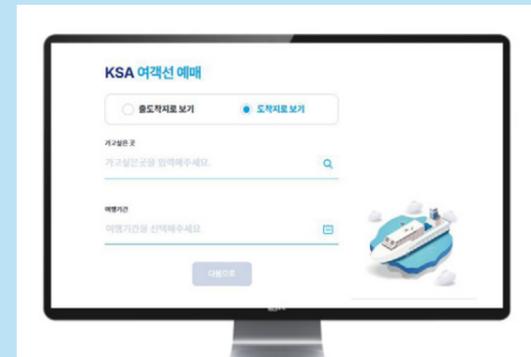
“섬지역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해야”

▷ 전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건의안 채택

▷ “연안여객선 야간운항 국비 지원도 필요”

의장협의회는 건의안에서 “섬 지역 주민들에게 연안여객선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생명선과 같은 역할을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연안여객선의 야간운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진형 기자 | 2025. 03. 15.



연안여객선, 더욱 편리하게 예매하세요!

▷ 해수부·해운조합, 연안여객선 예매시스템 개편

▷ 출발지 자동 표출 등 편의 제공

기존의 연안여객선 예매시스템은 다소 복잡한 구성과 검색·결제 편의 기능 부족 등으로 예매 시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번 시스템 개편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도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예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내 주요 포털과 연동하여 간편 회원 가입이 가능하며, 신속한 결제를 위한 결제 카드 사전 등록도 할 수 있다.

양진형 기자 | 2025. 04. 14.





섬의 모든 것을
나 타 내 는
단 하나의 소리
시 옷